

# KOICA 취약국 지원 중기이행전략(2017-2019)

2016.11.07

## ① 전략 수립 배경 및 필요성

### 가. 국내·외 배경

- 국제사회의 취약국 문제 해결 노력 확대
  - OECD : 취약성 해소를 위한 다면적 취약성 모델 개발
  - UN : SDGs 체제에서 취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와 제도 구축 강조
- 제2차 무상원조 기본계획 목표 추진 및 '17년 OECD/DAC 동료평가 대비
  - 포용적 개발 실현을 위한 취약국 및 원조 소외국 지원 확대 명시
  - '15년 OECD/DAC 중간점검시, 취약국 지원 계획 필요성 언급
- 우리정부는 효율적으로 취약국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
  - (외교부) 효율적인 취약국 지원을 위해 '취약국 지원 지침'을 수립중에 있으며, 취약국의 분쟁 및 폭력, 재난, 제도 취약성에 중점을 두어 지원 예정
  - (기재부) 세계은행에 2009년에 한국신탁기금(KTF : Korea Trust Fund for Economic & Peace-Building Transitions)을 설립하여 취약국을 지원
    - ※ 2009년부터 총 3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, 매년 약 240억원 규모로 운영 중(출처 : 2016년 KTF 연례보고서, 세계은행)

### 나. KOICA 취약국 지원 현황

- 취약국 지원 기준
  - (정의 및 명단) OECD의 취약국 정의 및 비공식 취약국 리스트 차용
  - (지원 원칙) 'KOICA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(2012)'에서 7대 원칙 제시
- 취약국 지원 ODA 비중 및 형태
  - KOICA 총 ODA의 약 29% 차지하며 중점협력국이 약 60% 차지
  - 일반 개도국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 형태로 진행
  - '15년부터 취약성 해소를 위한 'KOICA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예산' 신설
- 코이카 중장기 경영목표(2017-2021)의 전략과제에 취약국 지원 사항 반영
  - ※ 취약국 지원은 상기 경영목표의 '전략과제 II-6 : 재난, 분쟁, 소외층 효과적 지원'에 명시

**<KOICA 취약국 지원 현황>**

구분	2015		
	금액(억)	비율	
KOICA ODA 총액	6,372	100	
취약국 지원액(44국)	1,843	28.9	100
중점(11국)	1,109		60.1
비중점(33국)	734		39.9

**다. KOICA 취약국 지원 한계와 전략 필요성**

- 취약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차별화된 접근법 부재
  - 취약국 지원 7대원칙의 다대한 구성과 복잡성으로 실용성 저하
  - 취약성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 미흡으로 사업목적과 취약성 해소간 연계 부족
- OECD DAC의 변화된 취약국 지원 방향 반영 필요
  - 기존의 취약국 정의를 수정하여 분야별 취약성에 기반한 새로운 정의 제공
  - 2016년부터 비공식 취약국 명단을 폐지를 결정하여 대체 방안 필요
- 국제사회 흐름에 적합한 KOICA 취약국 지원 전략 마련 필요
  - OECD 다면적 취약성 접근법 및 SDGs를 반영한 지원 방안 강구
  - 기존 'KOICA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(2012)' 검토 및 개선 필요
  - 중장기 경영목표의 취약국 지원 전략과제 이행을 위한 지원 체계 수립

**② 취약국 지원 개념 수립 및 명단 선정**

**가. 취약국 정의 및 지원원칙**

- KOICA 취약국 정의 : OECD의 변화된 취약성 개념과 SDGs를 고려
  - (정의) 사회적·정치적·경제적·환경적 위협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의 관리 역량이 부족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도전에 직면한 국가
  - (특징) △내·외부 위협에 대한 자체적 복원력(resilience) 부족, △정책과 제도 미비, △빈곤과 저개발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한 취약성의 악순환 경험
- KOICA 취약국 지원 5대 원칙 수립
  - 기본원칙을 KOICA 취약국 사업 발굴 및 형성, KCPS 등을 수립 시에 고려

**<KOICA 취약국 지원 5대 원칙>**

원칙	세부 내용
국별 적합성	국별 상황에 맞는 취약성 파악 및 전략 수립
수원국 주도성	수원국 주인의식 강화 및 자체 시스템 활용 노력
원조 수단의 조화	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지원의 조화
비차별주의	평등, 사회통합, 인권증진, 젠더적 관점 고려
원조 무해성	원조로 인한 피해 방지(Do No Harm)

**나. KOICA 지원 대상 취약국 명단**

취약국 명단 활용 방안 및 원칙

- 개도국의 취약국 선정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 외부로의 명단 배포 금지

KOICA 취약국 명단

- OECD의 취약국 명단 선정 방법과 수원국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정

**③ 취약국 지원 추진 전략**

**가. 비전 및 목표**

- (비전) 취약국의 사회적·정치적·경제적·환경적 위험 대응 및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개발 촉진
- (목표) △취약국의 복원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, △취약국 제도 및 공공서비스 강화, △취약국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토대 마련

**나. 지원체계**

기본 고려 사항

- 취약국의 당면한 분야별 취약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추진
- 현지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념
- 사업의 단·중·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접근 방안 마련

단기적 접근 : 재건·복구 중점의 사업 추진 및 국내·외 파트너십 활용

- 분쟁 및 취약국 예산 활용(사업기간 2년으로 제한)
-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

□ 중·장기적 접근 : 양자사업 가능 여부 및 현지사무소 유·무에 따라 양자사업, 다자사업 등을 추진

○ 국별양자협력 유형 : 프로젝트(Deep 사업 포함), 프로그램 및 기금형 사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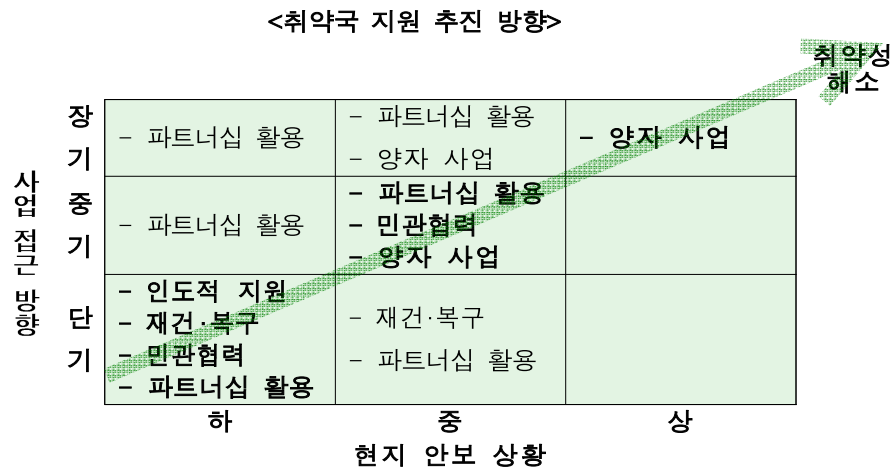
○ 다자협력 유형 : 국제기구협력, 국내·외 NGO를 통한 협력 등

※ 기타 지원 방안으로 삼각협력, 뉴딜이행 참여 등을 고려

□ 단·중·장기적 지원 연계를 위해 분쟁 및 취약국 예산을 가교(Bridge)로 활용

○ 당면한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구호 이후, 취약국의 복원력 강화 및 개발협력 사업과 효율적 연계를 고려

※ 예시 : 인도적 지원(6개월)-분쟁 및 취약국(단년도 또는 n-1년)-일반국별사업(n-2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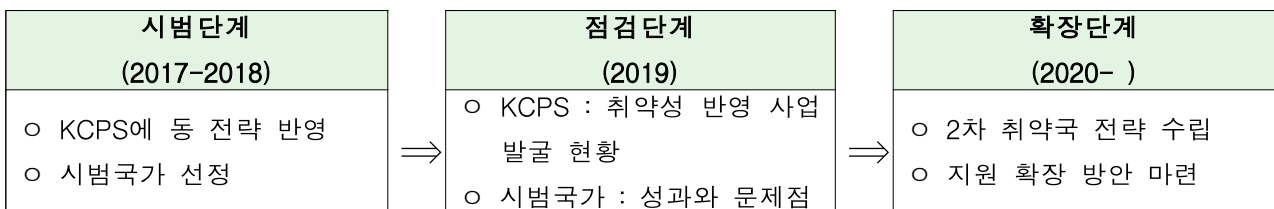
#### 다. 취약국 지원 이행 전략

□ 시범단계 : 동 전략을 기반으로 취약국 명단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KCPS 수립 반영, 시범사업 추진, 성과점검 방안 검토 추진

□ 점검단계 : KCPS 상의 취약성 해소 관점을 반영한 사업 발굴 및 이행 정도와 시범국가의 성과 점검

□ 확장단계 : 개선사항을 기반으로 향후 전략 보강 및 지원 확장 방안 마련

**<취약국 지원 이행 전략>**



#### 4 기대효과

- 취약국 지원 시, 취약성 해소에 기여하는 맞춤형 지원
- 향후 KOICA의 취약국 지원 확대 기반 마련
- KOICA의 취약국 지원의 경쟁력 강화
-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공동노력에 동참 및 기여. 끝.